

예수는 생명의 빵

조 덕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6:47-58, 흠정역

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48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2 이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53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55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1. 광야에서 주신 만나의 효능

이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서 40 년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꾸준히 공급해 주신 ‘만나’ [Manna]라는 양식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말씀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 죽었다고 지적하심으로써 만나가 한시적으로 그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특별한 식량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였던 리더인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사실 정당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불평부터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형편이 불리하게 되면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만나는 광야에서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해 주는 양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40 년간 공급하신 양식이었는데, 그러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즉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참된 생명의 양식에 우리의 주의를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만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광야에서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한시적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적 요건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의식주에 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25-3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하여 설교하시기 전에 오천명 이상의 배고픈 군중을 먹이셨고 [요한 6:1-14], 그리고 다른 시기에 사천명 이상의 군중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마태 15:32]. 그러한 이적을 두번이나 실행하심으로써 자신이 과거 구약시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는 것은 솔로몬의 커다란 영광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따라 생존하면서 자신들이 부여 받은 아름다움과 본분을 잘 보이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 욕심에 차서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고 하는 소위 ‘번영 신학’, ‘번영 복음 [Prosperity Gospel]’을 전하고 그 헛되고 잘못된 교리의 환상에 빠져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 년 여행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되었던가요? 그들 모두는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반석의 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늙어 갔고 광야에서 죽어 문혔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처럼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견뎌 내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부자 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빵을 구하기를 권면합니다.

2.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빵이 되셨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위가 있는데 이 위가 비워지면 공복감이 생기고, 그에 따라 우리 눈은 먹을 거리가 어디에 있는가 찾게 되며, 손으로 먹을 거리를 조리하고 코와 혀로 맛을 보면서 먹기 좋게 조리하여, 입으로 먹음으로써 배를 채우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빈곤감과 활력의 손실이 오게 되어 불안하게 되면서 먹을 거리 찾는 일을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공복감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의 신체적 욕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체적 욕구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아니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위가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혼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먹어야만 만족하는 빈 곳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혼 안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곳을 채우고자 마치 사슴이 아침 일찍 맑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2:1-2]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보이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자신의 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것을 알고 매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여러 시들을 남김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바로 그런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늘에서 온 빵이며 생명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 그 분은 우리가 매일 우리 몸과 혼을 먹일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11]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1 장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께서서 생명이시고 또 생명의 빛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 사셨을 때를 생각하면 그 말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신 분을 생각한다면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그랬고 이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6: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런데, 그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라고 매우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후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에게서 떠나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분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자 했던 자신의 몸'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두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기 원하셨을까요?

둘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두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 시간 씨름을 하였습니다. 나도 잘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여 이 세상의 속죄양으로서 죽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이 다만 이생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모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물인 어린양으로 바치기로 자원하셨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였노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심을 하시고 그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세분이 인간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친구로 여기신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그가 노년에 갖게된 유일한 적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2:1-14].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의 손을 그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대신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인간 계획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해야 함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 천여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2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는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4 천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신을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사건이 있는지 이미 2 천년이 지난 지금에 서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과거를 돌아보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시력을 가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이 생명의 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예수님의 살과 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 54-57]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더러 식인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 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미리 함께 하는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여기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문으로 남기기를 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이 말씀과 더불어 주의 만찬 시에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모두 읽을 수 있으니 그 의미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19-20]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고린도전서 11:23-26]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5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26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주는 웨이퍼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부가 성찬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빵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소위 화체설 [化體設:

Transubstantiation Doctrine]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 구절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체설은 사람들을 천주 교회에 노예로 매어 놓기 위한 신학적 억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을 먹고 실질적인 피를 마시게 된다면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는 성당에서 매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 교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며, 그의 피를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마심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칭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기념 성찬 예식에 진실한 동기와 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소와 활력을 제공하여 우리가 살아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수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매일 죄인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내 마음 속으로 흡수하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놀라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큰 활력을 얻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승천하시기 전의 마지막 당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자신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하여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여 종말을 맞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참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시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운 구원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왕권을 받아 왕중의 왕으로 하늘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선택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그 사건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4. 영원히 살기 위한 오늘의 선택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서둘러 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죽을 때에 몸은 땅 속에 들어가 썩지만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하는 필연적 선택이 요구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주로 받아 들이고,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시에 누룩이 들지 않는 빵 조각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커다란 특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의 혼을 매일 먹임으로써 참 생명력으로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